



이며 더구나 現在 蓀華閣에 移安된 石造浮屠^①의 原位置가 上記 寺址임에서 是處에 調査를 行한 槐山地區에서 行한 槐山地區地 表調査의 一環으로

이 一帶를 踏査한 바 있기에 그 內容을 簡單히 紹介하러 한다.

七星面所在地에서 約五km 水力發電所行路로 가면 發電所 附近에 外沙里 江을 건너기 前 東岸에 三星部落이 있고 그 南쪽 於口 耕作地에 幢竿支柱가 우뚱이 서 있음은 보아 곧 南向의 寺刹이었음을 알 수 있다. 前記 浮屠의 原位置는 幢竿支柱에서 東쪽 五百m 되는 道路邊으로서 現在 七星面長인 金漢根氏^②가 어렸을 때에도 늘 보고 다녔다 하는데 지금은 民墓二基가 자리잡고 있을 뿐 다른 痕跡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.

法堂址에는 十餘戶의 民家가 들어서서 原形은 完全히 錯亂되었으며 곳곳에서 殘餘石片 等 若干의 遺物이 發見될 뿐이다.

- (1) 幢竿支柱: 原位置로서 兩石柱가 整然하며 上端에는 竿柱를 支持하는 「홍」이 과여 있다. 下部中央에는 幢竿을 받기 爲한 臺石이 있는 데 二段의 圓座가 있는 羅·麗代의 樣式手法으로 보였다. 實測值는 (cm)、總高 三三四 支柱間幅 八一·五 支柱幅 三八·五 總幅 一六〇 竿柱臺石 徑六〇·五 支柱厚 六〇
- (2) 龜趺龜甲紋石片: 六角形의 龜甲紋으로서 三條의 陽刻인데 中央에는 四葉의 花瓣이 彫刻되어 있다. 現在 石片에는 三座의 龜甲紋 (一邊長 一一·五cm)이 있는데 龜趺를 몇 쪽으로 破壞하여 家屋의 石 材로 使用한 것 같다. 아마도 前記 浮屠와 關聯있는 碑石의 碑座龜 趺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附近의 細密한 再調가 있어야 될 것 같다.

- (3) 眼象石: 장독臺로 使用하고 있는 長大石片의 測面에 二柱의 掌柱가 刻出되고 三區에 各一區씩의 眼象이 陰刻되었는데 그 手法은 羅末麗初로 推定되었다.
- 實測值(cm)는 石材 現高 一八 眼象 高 八·五 撐柱 幅 四 眼象 幅 二六·五

- (4) 長方形形磚: 灰青色의 磚으로 洞里 한복판인 金玉圭氏宅 後庭에서 發見되었는데 洞民들의 말에 依하면 이러한 模樣의 磚은 無數히 出土되었으며 現在도 民家數地에 많이 埋沒되어 있다고 한다.
- 實測值(cm)는 一邊長 一一·三 一厚 五

- (5) 柱礎石: 民家마다 柱礎石을 建築資材로 많이 使用하고 있는데 圓座礎石과 方形礎石으로 方形에서도 그 크기가 三種類 있었다. 實測值(cm)는 圓座柱礎石 內徑 四三·八 圓座柱礎石 外徑 五四方形礎石 一邊 長 ① 四〇 ② 四五 ③ 六〇

- (6) 長大石類: 여러 種類가 發見되었으나 大概是 法堂築臺나 地臺石으로 보였다. 以外에 瓦片은 周邊 耕作地에 散亂한데 唐草紋이 彫刻된 막새가 調査되어 麗代로 推定되었다.

以上 이번 一次調査에서 發見된 몇 가지의 遺物을 簡單히 紹介하였는 바 時期가 夏節이어 穀物때문에 細部的인 調査가 困難하였고 더욱이 民家를 初面에 살살이 深索할 수가 없어서 뜻대로의 調査를 期하지 못하였다. 適切한 季節에 再調의 機會가 있어서 完全한 調査報告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.

註

① 拙稿·槐山石造浮屠(本誌 第五卷 第二號 通卷四十三)

② 氏는 이 곳이 故鄉이라 하며 當時 이 浮屠를 본 사람은 現在도 이 部落에 많이 居住하고 있다 한다.

在銘印花文粉青沙器 新例

鄭 良 謨

年前 卞某氏의 厚意로 大邱 某收藏家의 秘藏品인 表題의 粉青沙器印

